이 대 앞
골목산책

추억과 낭만
그리고 새로운
즐거움을 만난다

prologue

이대 앞, 변하지 않는 매력 06

3길
원스톱 편리한 일상, 생활형 주택 거리

패션과 예술 문화의 콜라보레이션 ul:kin 갤러리 14

포기할 수 없는 아름다움 RITA & 별네일 16

plus info_ 눈에 띄는 맛집

화학조미료가 없는 깔끔한 맛 소바야린 18

바삭바삭 수제 튀김 전문점 삭 18

김치나베 카레 전문점 유라꾸 키친 19

5길
이화패션 문화 거리
'E·FaRo'

자연스러운 멋을 자아내는 유니크함 LASOLITUDE & a Romantic 24

심미성과 실용성을 갖춘 패션 브랜드 In:k.ji 26

무채색의 한없는 매력 CHUNJUNWOO 28

아름다운 자존감의 디자이너 주얼리 MATIAS 30

듀오 디자이너 브랜드숍 project 307 32

닮은 듯 닮지 않은 두 개의 개성 JROBE & KAMI.柳 34

핸드메이드 디자이너 주얼리 DALRING4U & EGO VERO 36

힐링을 선물하는 숍 AYN FLOWER 38

50년 전통의 디자이너 브랜드 BICHURY 40

새것처럼 완벽하게! **연륜으로 쌓은 기술, 이대 앞 수선집** 42

plus info_ 눈에 띄는 맛집

뉴욕 정통 베이글 MOTHER-IN-LAW BAGELS 44

현지인 요리사의 정통 베트남 맛 63PROV. 45

interview JCHOI(제이초이) 최정수 디자이너 46

7길
365일 활기 넘치는 보세숍 거리

최신 트렌드와 저렴한 가격의 최고 상권 **중통거리** 52

좋은 원단과 심플한 디자인이 매력 **아이셔** 54

실패 없는 쇼핑 P.D 56

프렌치 스타일 꽃집 **플로린** 58

plus info_ 눈에 띄는 맛집

혼자만 아껴두고 싶은 빵집 **비밀** 60

폭신한 와플 위 다양한 토핑 better than WAFFLE 60

고급 자판기 혹은 무인카페 Touch Cafe 61

또 다른 길

문화와 예술의 공간, 이화여대 주변 거닐기

이대 앞 변화가 시작된 곳
이화 52번가 64

커피 문화의 '별'천지
스타벅스 1호점 '이대점' 66

이화여대의 추억과 낭만을 이어갈 복합문화공간
신촌 박스퀘어 68

매일 마주치는 문화재
신촌역사 70

청년 문화 예술인의 아지트
신촌문화발전소 72

거리 화가들의 전시장
신촌 토끼굴 74

epilogue
이대 앞, 그 새로운 가능성 76

illust map
이대 앞 골목 78

이대 앞, 변하지 않는 매력

과거 '이화여대'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남달랐다. 전국의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이 모인 곳, 금남의 공간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대는 근접할 수 없는 도도함을 지녔다. 정문 앞에서 꽃을 들고 서성거리는 남학생들, 삼삼오오 모여 서로 얼굴을 붉혔던 미팅, 지금은 사라졌지만 쉽게 건널 수 없었던 이화교, 파리 다방, 여왕봉 다방, 미스티, 딸기골 분식 등은 기성세대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다.
이대는 남학생들에게는 판타지였고, 여성들에게 이대생은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대상이었다.

이대가 주는 특별함은 신촌과 더불어 1970~1980년대 젊음과 낭만, 히피들이 모여 열정을 불사르던 청년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했으며, 이대 스타일을 동경하며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 대학 앞 상권은 '패션의 메카'로 떠오르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상권이 형성되듯 최상의 입지를 지녔던 이대 앞은 이대 전철역에서 이대 정문으로 내려가는 길을 중심으로 수많은 옷가게와 헤어, 뷰티숍들이 들어서며 서울에서 가장 핫한 상권으로 자리를 잡았고, 유행에 민감한 대학생과 직장인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최신 스타일의 옷을 살 수 있는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1970년대 이대 앞 골목

사진 제공: 이화역사관

그러나 항상 새로움을 쫓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은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섰고, 한때 최신 패션 트렌드를 알기 위해 이대 앞으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동선은 홍대 앞 등으로 옮겨갔다.

지금 이대 앞은 움직이고 있다. 이대 3·5·7길을 중심으로 한 골목들에서 작은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누군가는 그 달라진 모습 이전을 기억하고 추억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지금의 새로운 모습에 앞으로의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주거 공간이 생겨나고 있고, 젊은 디자이너들의 개성 있는 숍이 불을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아낌없이 지원하는 서대문구의 정책적 지원도 크게 한몫하고 있다.

1980년대 이대 앞 골목

사진 제공: 이화역사관

2001년 복개공사로 이화교를 없앤 이후 이화여대는 대학을 둘러싸고 있던 높은 담을 허물고, 정문을 없애고, 전시실 영화관 식당 서점 등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지하 캠퍼스 ECC(Ewha Campus Complex)를 조성하면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여기에 상권을 되살리고자 모인 많은 사람이 머리를 맞대어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대 앞은 다시금 부흥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화여대의 잘 가꿔진 녹지는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공간이다. 과거에 이런 장점이 합쳐져 이화여대 앞 상권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것처럼 새로이 단장하고 있는 이화여대 앞 상권은 여전히 개성 있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지금의 젊은 층에게도 사랑받으며 기억될 것이다.

이대 앞 골목의 현재

사진 제공: 서대문구청

7,000원

3길

원스톱 편리한 일상, 생활형 주택 거리

지하철 2호선인 이화여대역에 근접해 있고
이화여대 중심 상권과 밀접한
이화여대3길은 최근 신축 오피스텔이 들어서며
생활형 주택 거리로 변모하고 있다.
먹거리, 쇼핑, 생활에 더없이 편리한
주택 거리다.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는 아케이드형 거리

교통, 편의성, 사생활 보장, 조용함…. 보금자리를 구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조건이다. 시외의 새로 형성되는 주택가는 새 건물이라 집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고 주변 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도심 한가운데 대로변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편리하기는 하지만 시끄러운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최근 오피스텔 거리로 재정비되고 있는 이화여대3길은 이런 태생적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었다. 이미 이화여대 상권을 끼고 있어 없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만큼 생활의 불편함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싱글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요리를 해결해줄 다양한 식당은 물론 할인점, 은행, 베이커리, 편의점, 헤어숍 등 다양한 캐릭터의 숍이

마치 아케이드처럼 거리를 따라 형성되어 있어 문밖을 나서면
5분 안에 필요로 하는 모든 생활 요건이 갖춰져 있다.
아무리 바빠도 굶을 일이 없고, 지하철역을 오가며
생활상 필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또 이화여대3길은 지하철역과 가깝지만 대로변과는 떨어져
있고, 북적거리는 이화여대길과 7길과도 거리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어 일반적인 도심 중심가의 오피스텔에서
겪을 수 있는 소음 공해와도 인연이 멀다.

이화여대3길은 편의성은 보장되면서 대학가의 낭만을
여전히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다. 공부에 몰입해야
하는 학생이든 사회생활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직장인이든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면
체크리스트에 이화여대3길을 빠트리지 않을 것을 권한다.

패션과 예술 문화의 콜라보레이션

ul:kin 갤러리

디자이너 이창동의 옴니아트 패션 브랜드인 'ul:kin(얼킨)'은
'얼키고 설킨'이라는 한국어와 'Ultimately : we are Kin'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ul:kin의 시그니처 아이템은
신진 아티스트들의 버려지는 회화 작품을 소재로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예술 문화의 가치를 대중과 공유하고자 한다.
지난 2018년 8월 이화여대3길에 ul:kin의 쇼룸이자 갤러리가
오픈했다. 반지하에 있는ul:kin 갤러리는 얼핏 보기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면 예술작품이 가득한,
특별한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브랜드의 콘셉트처럼
ul:kin 재능순환 프로젝트의 일환인 신진 아티스트와 협업한
전시회가 꾸준히 열리고 있다. 커피도 판매한다.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3길 21
open 1pm~8pm, 토·일요일 휴무

ul:kin Gallery

포기할 수 없는 아름다움

RITA & 별네일

이화여대3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골목길을 마주보고 작지만
한눈에 쏙 들어오는 숍이 있다. 한쪽은 헤어숍, 한쪽은 네일숍이다.
'RITA(리타)'는 깐깐한 여대생과 직장인을 상대로 이대에서만
8년간 헤어숍을 운영한 디자이너가 지난여름 숍을 이전해
새로이 단장한 곳이다. 열펌이 전문으로 단골이 많다.
커트 1만 5,000원, 염색 3만 8,000원, 펌은 5만원부터 시작이다.
맞은 편의 '별네일' 역시 지난여름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연 곳으로
경력 10년의 네일 아티스트가 운영하는 곳이다. 100% 예약제로
운영되며, 이곳의 장점은 아트네일이다. 일요일은 기본적으로
휴무지만, 예약을 하면 케어를 받을 수도 있다. 기본 케어 1만 5,000원,
젤 네일 2만 5,000원이다. 신촌영타운 지웰에스테이트 1층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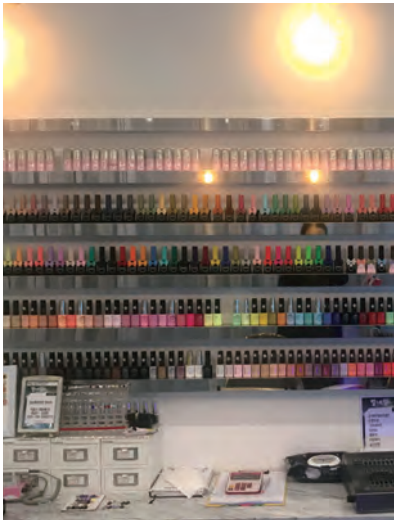
RITA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3길 33
open	10am~9pm, 일요일 휴무
tel	02-313-8833

별네일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5길 35
open	11am~9pm, 일요일 휴무
tel	010-5918-2422
instargram	eunju218

RITA HAIR



plus Info
눈에 띄는
맛집

화학조미료가 없는 깔끔한 맛

소바야린

2018년 초,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와 백종원이 칭찬해
마지않았던 메밀국수의 간장 '쯔유'가 있는 소바집이다.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깔끔한 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판메밀 돈카츠 세트와 냉메밀 돈카츠 세트 등
대부분의 메뉴가 1만원 전후다.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3길 10
open 11:30am~6pm(라스트오더 5pm), 토·일요일 휴무
tel 02-312-0703

바삭바삭 수제 튀김 전문점

삭

이대 맛집 검색에서 빠지지 않는 수제튀김 전문점이다.
튀김 전문점인 만큼 느끼하지 않으면서도 바삭바삭한 튀김이
일품이지만, 튀김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기 있는 것은 삭의 떡볶이다.
말랑말랑한 떡의 식감은 물론 오랫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의
감칠맛이 혀에 착착 감긴다.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3길 12
open 12pm~11pm, 연중무휴
tel 02-363-0709

김치나베 카레 전문점

유라꾸 키친

이화여대 3길과 5길로 통하는 좁은 골목길에 있는
김치나베 카레 전문점. 48시간 동안 숙성시킨 소스와 카레로 만든
나베와 덮밥으로 유명하다. 짠맛과 단맛이 조화를 이룬 곳이다.
돈까스김치나베, 치킨김치나베, 돈까스덮밥, 치킨덮밥
4가지 메뉴가 있으며, 모두 7,000원이다.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3길 12-4
open 11:30am~7:30pm(브레이크타임 3pm~4:30pm, 라스트오더 6:50pm),
토·일·공휴일 휴무
tel 02-324-7779

5길

이화패션 문화 거리 'E·FaRo'

이화여대5길은 패션과 주얼리 등의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는
패션문화 거리다.
스타트업 브랜드가 많은 만큼 참신하고
아이디어 넘치며, 모던하면서
세련된 감각을 지닌 숍이 많다.

이화여대 상권의 특화된 디자이너길

수많은 명곡을 남기며 세기의 작곡가이자 천재로 인정받은
모차르트. 만약 그가 35세에 생을 마감하지 않고 더 오래
살았다면 이후 그의 행로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많은 사람이 이전의 모차르트의 업적으로 보아 노년까지
더욱 아름답고 보석 같은 곡을 남겼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부는 새로이 뜨는 젊은 신인 작곡가에 밀려 다른 작곡가와
마찬가지로 모차르트 역시 고뇌하며 쇠퇴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어느 쪽에 더욱 공감할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술과 창작이라는 분야에서 번득이는 젊은 신인들의 감각을
무시할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6년 패션 스타트업 신진 디자이너를 지원하기 위해
이화여대5길에 만들어진 'E·FaRo(이파로)'는 이런 젊은 감각의
디자이너를 대거 만날 수 있는 거리다. 'Ewha Fashion Meca'와
'길 로(路)'를 합쳐 이름 지어진 'E·FaRo'는 주변 상인들에게
'디자이너길'로 통한다. 또 '돈이 불어난다'는 뜻의 중국어
'리파'와 발음이 같아 유커들 사이에서 행운의 명소로 불리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현재 3차까지 디자이너 선발이 진행되었으며,
패션과 주얼리 등 총 16명의 디자이너가
이파로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파로의 디자이너로 선별되면
쇼룸을 무상으로 제공받음과 동시에 브랜드 컨설팅,
판로 개척, 유통 네트워크 연결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디자이너 브랜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디자이너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E·FaRo
홍보관'을 두고 디자이너뿐 아니라 이곳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도
이파로 디자이너 브랜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디자이너의 재기발랄한 젊은 감각이 궁금하다면
이화여대5길, 디자이너길을 걸으며 숨은 보석을 캐내듯
숍을 찾아보는 것도 추천한다.
디자이너 브랜드의 경우 간판에 'E·FaRo'라고 표기되어 있다.

E·FaRo 홍보관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3길 28
open 11am~8pm, 토·일요일 휴무

자연스러운 멋을 자아내는 유니크함

LASOLITUDE & a Romantic

블랙 외관과 화이트 실내의 대조로 모던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숍은
디자이너 김홍경의 패션 브랜드 'LASOLITUDE(라솔리튜드)'와
10여 년간 세공 기술을 연마한 주얼리 디자이너 송헨델의
주얼리 브랜드 'a Romantic(어 로맨틱)'이 입점해 있다.
고독이란 이미지를 바탕으로 기존 스타일을 재해석한
젠더리스 패션 브랜드 LASOLITUDE는 남녀 성 역할 해체를 통해
새로운 룩을 지향한다. '낭만을 제작하다'라는 콘셉트를 가진
a Romantic은 51%의 로맨틱, 48%의 장인정신, 1%의 리얼리티로
평소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의 은세공 주얼리를 만들어낸다.
핸드메이드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아이디어스'에서도 송헨델 디자이너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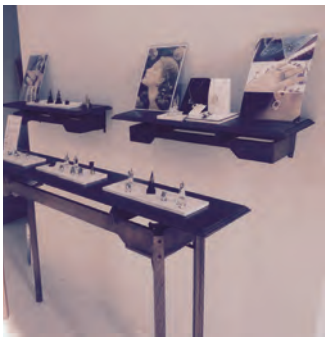
LASOLITUDE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5길 38
open	11:30am~8:20pm, 일요일 휴무
blog	blog.naver.com/la-solitude
instagram	lasolitude_official

a Romantic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5길 38
open	11:30am~8:20pm, 일요일 휴무
instagram	a_romantic_silver / a_romantic_official
NAVER smartstore	smartstore.naver.com/a_romantic
idus	www.idus.com/aromantic

La Solitude
FaRo
a Romantic



심미성과 실용성을 갖춘 패션 브랜드

In:k.ji

패션 디자인뿐 아니라 실내 건축, 브랜드 매니저 등의 외래교수 이력을 지닌 디자이너 강혜원의 패션 브랜드다. '가두다'라는 의미를 지닌 'encage'의 영문 발음을 이용해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 만든 'In:k.ji(인케이지)'라는 브랜드명이 독특하다. 디자이너 강혜원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한 자신의 이력을 살려 해체와 재구성을 통한 멀티 펑션(Multi-Function) 구조의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통해 심미성과 실용성이 어우러진 패션을 추구한다. 심플하지만 심플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차분한 느낌의 이중적인 분위기의 의상이 주를 이룬다. 평소 디자이너 브랜드에 관심이 있으면서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의 의상에 질린 사람이라면 찾아볼 만하다.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5길 38
open 11:30am~8:20pm, 일요일 휴무
instagram in.k.ji

in:K.ji
in:K.ji
FaRo

무채색의 한없는 매력

CHUNJUNWOO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색은 단연 화이트와 블랙이다.
'CHUNJUNWOO(천준우)'는 화이트와 블랙이 주는
무채색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질 수 있는 패션 브랜드다.
디자이너 천준우는 기본 디자인을 추구하지만,
디자이너의 색채가 완연하게 드러나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다.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색과 디자인,
원단이 좋다는 입소문을 타고 해외에서도
천준우 디자이너를 찾는 소비자가 많다.
셔츠·스커트 10만 원대, 재킷 20만 원대, 코트 60만 원대의
가격으로 디자이너 브랜드의 옷을 즐길 수 있다.
남성복과 여성복, 둘 다 취급한다.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5길 36
open 11am~8pm, 일요일 휴무
instagram chunjunwoo

아름다운 자존감의 디자이너 주얼리

MATIAS

심플함이 현대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미덕처럼 여겨지는
시대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견줄 수 없는 화려함과 웅장함이다.
2016년 디자이너 이가연이 론칭한 'MATIAS(마티아스)'는
이러한 인간의 원초적 본능에 주목한 주얼리 브랜드다.
클래식한 디자인을 기본으로 묵직하면서도 강렬함을 주는
디자인이 주를 이루는 MATIAS는
'아름다운 자존감'을 가진 여성을 위한 주얼리를 제작한다.
여성이 지닌 그대로의 향기를 더욱 진하게 만들어주는 MATIAS는
가장 화려하고 여성스러움이 필요할 때 찾아보면 좋은 브랜드다.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5길 32
open 1pm~8pm, 일요일 휴무
homepage www.matia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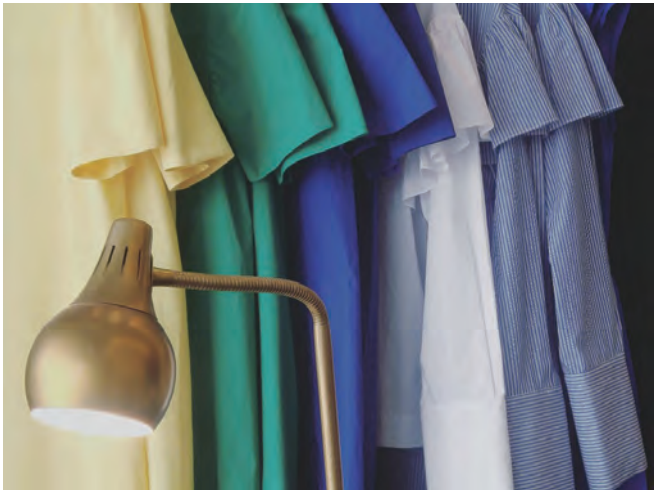
MATIAS
Designer Custom Jewelry
32

듀오 디자이너 브랜드숍

project 307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지만, 다른 성질을 이용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project 307(프로젝트 307)'도 성향이
전혀 다른 두 명의 디자이너 권서린과 박혜수가 만들어내는
듀오 디자이너 브랜드다.
2017년 정식 론칭 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project 307은
두 디자이너의 협업으로 만들어지며, 장점은 부각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최고의 디자인을 뽑아낸다.
'나다움'을 지향하는 project 307은 모던 클래식의 기본 콘셉트에
위트를 더해 독특한 분위기를 살린 의상이 주를 이룬다.
미니멀한 맥시 드레스와 볼드한 액세서리가 주를 이룬다.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5길 28
open 12pm~7pm, 일요일 휴무
homepage www.project307.co.kr
instagram project307_official



project307

닮은 듯 닮지 않은 두 개의 개성

JROBE & KAMI.柳

하나의 매장에 핸드메이드 주얼리 'JROBE(제이로브)'와
실버 주얼리 'KAMI.柳(카미유)' 두 주얼리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JROBE는 대학 졸업 후 의류 회사와 부티크에서
의상 디자인을 했던 디자이너가 주얼리로 전향하며
존재감을 자랑하는 굵은 선의 주얼리를 만들어낸다.
반면 차분하면서도 정숙한 아름다움을 강조한 KAMI.柳의 주얼리는
선(Line)을 강조한 제품이 많아 다양한 레이어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두 브랜드 모두 심플한 디자인이 주를 이루지만,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다.
1~3만원대의 귀걸이 등 합리적인 가격은 물론 한 공간에서
두 디자이너의 다른 감각을 즐기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다.

JROBE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5길 23
open	1pm~8pm, 일요일 휴무
bolg	blog.naver.com/j_robe
instagram	jrobe.official

KAMI.柳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5길 23
open	12pm~8pm, 일요일 휴무
homepage	storefarm.naver.com/kamiyoo
instagram	kami.yoo

JRobe

KAMI.柳
kamiryu accessory

핸드메이드 디자이너 주얼리

DALRING4U & EGO VERO

디자이너 김신영의 마그네틱 주얼리 'DALRING4U(달링포유)'와
실버 주얼리 'EGO VERO(에고 베로)'가 입점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애칭 'Darling'과 같은 발음인 DALRING4U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마그네틱과 매력적인 링(RING)'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DALRING4U는 자체 제작된
마그넷(Magnet) 홀더와 고정 장치를 활용해 하나의 미니 펜던트로
팔찌, 발찌, 반지, 귀걸이, 목걸이로 호환할 수 있는
독창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아이디어 패션 주얼리 브랜드다.
'진정한 나'를 의미하는 EGO VERO는 점, 선, 면의 조형 원리로
구현되는 고품격 주얼리로 은은하고 부드러운
컨템포러리 핸드메이드 브랜드다. 디자이너와 상의해
원하는 디자인으로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

DALRING4U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5길 15
open 11:20am~8:30pm, 일·공휴일 휴무
homepage www.dalring4u.com

EGO VERO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5길 15
open 11:20am~8:30pm, 일·공휴일 휴무

FaRo
palrina
EGO VERO
handmade silver

palrina

EGO VERO
handmade silver

힐링을 선물하는 숍

AYN FLOWER

복작거리는 이화여대5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간이 멈춘 듯,
이유 없이 들어가 인사를 나누고픈 공간이 있다.
산소가 가득할 것처럼 청정한 분위기를 지닌
'AYN FLOWER(아인플라워)'는 지난 9월
플로리스트 신아름이 오픈한 플라워숍이다.
꽃다발, 꽃바구니, 센터피스, 플라워박스 등 싱싱한 생명감을
뿜어내는 생화와 화분 등의 판매는 물론 웨딩, 파티 스타일링
등을 진행한다. 플로리스트의 모던하면서 아름다운 감각을
배울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와 취미반 등을 상시 연다.
선물은 물론 힐링이 필요한 사람, 플라워데코에 관심이 있다면
AYN FLOWER의 문을 두드려볼 만하다.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5길 15
open	10:30am~8pm, 일요일 휴무
tel	070-4151-0488
instagram	aynflower
KAKAO	aynflower

Flower order
Class
Wedding
Party styling
Plants
꽃

50년 전통의 디자이너 브랜드

BICHURY

이화여대5길 골목 안, 담쟁이로 뒤덮인 담벼락 안쪽으로 자리한 고즈넉한 분위기의 'BICHURY(비츄리)'는 1960년대 후반부터 패션 일에 종사했던 디자이너 고영미에 이어 에스모드서울과 이탈리아의 폴리모다에서 패션을 공부한 디자이너 이규한이 대를 이어 운영하는 브랜드다. 순수한 한글 '비추다'라는 뜻의 BICHURY의 브랜드명에는 옷을 통해 자신을 남에게 돋보이게 비출 수 있고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50년간 축적된 BICHURY만의 기술과 디자인에
유럽 감성의 패턴을 접목한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만나볼 수 있다.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5길 9-3
open 11am~7pm, 일요일 휴무
tel 02-362-9130
instagram bichury

새것처럼 완벽하게!

연륜으로 쌓은 기술, 이대 앞 수선집

맞춤 양장점이 유행했던 시절, 패션 메카였던 이대 앞은
양장점과 함께 수선집도 성업을 이뤘다. 지금은 그 수가
현저히 줄었지만, 30~40년의 노하우를 가진 수선집 중
몇몇은 여전히 이대 앞을 지키고 있다.
'진수선'은 즉석 수선이 가능하며, 속옷, 모피 등
천으로 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17살 때부터 옷 만드는 일을 한 김옥광 할머니가 운영하는
'배꽃수선' 역시 모든 의류를 수선하지만, 이곳은 특히
남자 양복에 강하다. '신대륙'은 명품 가방을, 1978년부터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수선'은 명품 의류와 리폼이 주를 이룬다.

진수선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5길 3
open 11am~8pm, 일요일 휴무
tel 02-312-1104

신대륙
address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5길 6
open 월~금 10:30am~8:30pm, 토·공휴일 11:30am~7:30pm, 일요일 휴무
tel 02-392-8306

배꽃수선
address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3길 42-17
open 10am~7pm, 토·일요일 휴무
tel 02-362-3367

영수선
address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5
open 9:30am~9pm, 일요일 휴무(공휴일 정상 영업)
tel 02-312-0627

plus Info
눈에 띄는
맛집

뉴욕 정통 베이글

MOTHER-IN-LAW BAGELS

'MOTHER-IN-LAW BAGELS(마더린러 베이글)'을 직역하면
'장모님이 만드는 베이글'. 뉴욕에서 유태인 정통 베이글 가게를
13년간 운영한 장모의 기술을 전수받아 오픈한 곳이다.
전기 오븐이 아니라 유태인들조차도 고수하지 못하는
화덕 오븐에서 구워지며, 이러한 힘겨운 생산방식을
〈생활의 달인〉에서 다루며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다.
베이글 샌드위치도 맛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맛보기 힘든
쫀득쫀득하고 깊은 베이글 본연의 맛을 보길 추천한다.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5길 5
open 월~금 8:30am~7:30pm, 토·공휴일 10am~7pm, 일요일 휴무
tel 070-7758-3030
homepage motherinlaw.modoo.at

현지인 요리사의 정통 베트남 맛

63PROV.

이화여대5길에서 가장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두 명의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정통 베트남 전문 식당이다.
바게트에 각종 재료를 채워 넣은 베트남식 샌드위치인
'반미'와 쌀국수가 이곳의 주메뉴다.
베트남 현지의 맛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미 5,500원, 쌀국수 6,500~7,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도 매력적인 곳이다.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5길 15
open 11am~9pm, 연중무휴
tel 02-393-8463

interview
:

"이파로는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든든하고 훌륭한 플랫폼입니다."

_JCHOI(제이초이) 최정수 디자이너

29세에 디자이너의 꿈을 안고 무작정 뉴욕으로 날아가 패션 공부를 시작한 청년이 있다. 디자이너하우스에서 경험을 쌓은 후 한국으로 돌아와 브랜드를 론칭하고, 현재 6시즌째 컬렉션을 선보인 JCHOI(제이초이) 최정수 디자이너다. 클래식과 컨템포러리, 대중과 리얼리티 안에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JCHOI는 건축, 회화 등의 다양한 주제들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한 뒤 다시 단순화시켜 디자인 전개해 나아가는 브랜드다. 이파로 3차 지원사업에 당선되어 차근차근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JCHOI 최정수 디자이너를 만나보았다.

Q. 어떤 계기로 이파로에 지원하게 되셨나요?

몇 해 전부터 서대문구에서 청년 디자이너들을 위해 디자인 멘토링, 비즈니스 교육, 쇼룸 운영 등, 젊은 창업 디자이너들에게 꼭 필요한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지원하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청년 사업가로서 너무나 절실했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지원했습니다. 3차 디자이너를 모집했을 때 제이초이만의 능력과 성장 가능성, 차별화를 나타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고, 동시에 이대를 포함한 신촌의 상권 분석과 디자이너 브랜드로서 그 상권 안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이파로의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지원 사업들과 달리 서대문구는 지속적인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당면한 과제 및 문제점에 대해 피드백이 빠를 뿐 아니라 시기적절하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파로에 선정된 다른 디자이너 브랜드들과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다양한 측면에서 소속감 및 안정감을 받는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Q. 이대 상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 '이대'라는 이름은 단순히 대학의 이름을 넘어 다양한 패션, 문화 지역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보세매장의 난립과 무분별한 경쟁으로 상권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관광객 및 내국인들이 쇼핑을 왔을 때 저렴하고 이미테이션을 파는 거리라는 기억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분명 장기적으로 마이너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 거리라는 생태계 안에서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가치를 찾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Q. 이파로 운영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패션은 산업인 동시에 문화 콘텐츠입니다. 한류라는 이름 아래 패션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몇 년간 연습생활을 거친 케이팝그룹 하나가 전체 한국음악을 세계에 알리듯, 스타 디자이너 한 명이 한국 패션 전체를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파로라는 훌륭한 플랫폼 안에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브랜드들이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3개의 브랜드가 서울패션위크에서 패션쇼를 했으며, 국내외 바이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이파로가 있어 가능했던 부분들이 매우 큽니다. 이파로 사업이 장기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자체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7길

365일 활기 넘치는 보세숍 거리

상권이 이전만 못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관광객과 쇼핑객들이
이화여대 앞을 즐겨 찾는 이유는
바로 이화여대7길의
트렌디한 보세숍 덕분이다.
수많은 보세숍은 저렴한 가격과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쇼핑객을 매료시킨다.

이랜드의 성공을 꿈꾸는 수많은 별들

국내의 대표적인 패션 기업인 이랜드의 시작은 번듯한 패션 디자이너도, 대기업에서 보란 듯 만들어낸 브랜드도 아닌 이화여자대학교 앞에서 흔하디흔하게 볼 수 있는 수많은 보세의류가게 중 하나였다.
1980년 전남 목포시 출생의 28세 박성수 회장은 '잉글런드'라는 이름으로 이대 앞에서 작은 보세숍을 열고 장사를 시작했다. 당시는 이화여대 상권이 최고 활황기를 누리던 시절로 시장의 번성과 박성수 회장의 열정이 맞물리면서 번창한 잉글런드는 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1986년 박성수 회장은 잉글런드를 '이랜드'로 바꾸고, 회사를 법인화하며 기업으로 성장할 채비를 마쳤다. 이후 이랜드는 '다(多) 브랜드'와 '서브브랜드'라는 마케팅 전략으로 아동복, 시계 및 주얼리, 여성 캐주얼, 유통업, 식품사업 등의 분야에 진출하며 지금의 내로라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이화여대7길은 저렴한 보세숍과 구두, 주얼리숍들이 밀집해 있는 거리다. 관광객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상품의 순환이 그 어느 곳보다 빠른 곳이기도 하다.
중통거리를 걷다 보면 언뜻 북새통을 이루는
무질서한 시장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숍은 자신만의 개성을 갖추고 조금씩 변화하며
시대와 소비자의 성향에 맞춰가고 있다.

취업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사람도 분명 있지만, 수많은 사람이 이랜드와 같은 성공을 꿈꾸며 창업의 길로 들어선다.

이화여대 앞의 보세숍들 역시 지금은 작은 옷 가게이지만, 마음속에는 이랜드의 길을 걷기 위한 거대한 꿈을 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꿈을 위한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는 한 이들의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최신 트렌드와 저렴한 가격의 최고 상권

중통거리

예쁘고 저렴한 옷을 찾는다면 이화여대7길과 5길을 잇는
중앙 길을 찾으면 된다. 이화여대 골목길 한가운데를 통칭해
'중통(中通)거리'라고 부르는 이곳은 저렴하면서
예쁜 상품을 찾는 관광객에 최적화되어 있다.
1만원대의 티셔츠는 물론 가방, 신발까지 있으며,
1+1 이벤트도 즐비하다.
상품이 바로바로 바뀌기 때문에 최신 디자인 트렌드와
스타일링을 살피기에도 좋다. 보세숍이 즐비한 이대 앞의
특성 때문에 외국 관광객과 국내 소비자들이 뒤섞여
사람들의 왕래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직접 눈으로 보며 트렌드를 살피고 싶다면
중통거리만한 곳이 없다.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7길 주변

CHIPOLEON
36st.

Banana

좋은 원단과 심플한 디자인이 매력

아이셔

패션숍이 즐비한 이화여대7길 중에서 깔끔한 디자인과
스타일링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보세숍이 있다.
이화여대 앞에서 6년간 숍을 운영한 '아이셔'다.
2년 전 이화여대5길에서 7길로 이전하면서 교체하지 못해
간판은 아이셔와는 전혀 무관한 '추억공방'이 걸려 있다.
아이셔의 가족은 모두 패션 쪽과 관련이 있다.
수십 년간 옷을 만든 어머니와 도매 옷을 판매하는 동생,
그리고 이화여대 앞에서 아이셔를 운영하는 주인장이다.
아이셔는 디자인은 물론 원단 위주로 상품을 구비하고 있어
국내 단골은 물론 외국인 중에서도 단골이 많다.
셔츠는 2만원대, 재킷은 7만원대이며,
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 중이다.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7길 31
open 11am~9pm, 연중무휴

추억공방
추억공방
追憶工房
Memory Factory

실패 없는 쇼핑

P.D

이화여대7길의 초입에 있는 2층 회색 건물은
이화여대3, 5, 7길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성숙한 분위기의
숍이다. 'P.D'는 30대 직장인과 나이보다 젊게 트렌드를
소화하고 싶은 40~50대를 타깃으로 하는 보세숍이다.
우아하면서도 클래식한 디자인이 많으며,
블라우스 3만원, 재킷 10만원대, 바지 5~6만원대이다.
이대에서 5년간 장사하며 "옷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반드시 입어보고 사야 한다"는 철칙을 세운
주인장은 P.D를 찾는 모든 소비자에게
100% 착용한 뒤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한다.
세련된 주인장의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스타일링 노하우도 한 수 배울 수 있다.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7길 8
open 10am~10pm, 연중무휴

8

프렌치 스타일 꽃집

플로린

한 송이든, 풍성한 다발이든 바라만 보고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것이 꽃을 가까이 두고 싶은 이유다.
플로린은 이화여대7길 골목 안쪽에 있어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향기를 따라가다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다. 프랑스에서 공부한
플로리스트 함민정이 운영하는 플라워숍으로
들꽃, 열매, 풀 등 자연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원데이 플라워 클래스, 취미 전문가 클래스가 있으며,
직접 부케를 만들어볼 수 있는 웨딩 클래스도 진행한다.
누군가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오랫동안 외면했던 꽃을 곁에 두고 싶을 때
찾아보고 싶은 숍이다.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7길 31
open	12pm~8pm, 일요일 휴무
tel	02-363-3791
bolg	florinn.blog.me
instagram	florinn_jenny

Diplôme
Passport 1 et Passport 2

Florinn
Flower & Interior

plus Info
눈에 띄는
맛집

혼자만 아껴두고 싶은 빵집

비밀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이원일 셰프가 운영하는 빵집이다.
유기농 밀가루와 천연 효모로 만든 빵은 건강한 맛이다.
올리브, 바질, 감자, 큐민, 치즈, 토마토, 시금치 치아바타 등
한 가지 품목에서도 재료에 따라 여러 종류의 맛을 고를 수 있다.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7길 48
open 월~토 8am~9pm, 일 10am~5pm
tel 02-313-0877

폭신한 와플 위 다양한 토핑

better than WAFFLE

출출한 오후, 쉽게 손이 가는 간식 중 하나가 와플이다.
티라미수, 바나나누텔라, 생크림, 블루베리, 애플 시나몬 등
다양한 토핑 중 하나를 골라 폭신한 식감의 와플과 함께 즐길 수 있다.
토핑에 따라 2,000원에서 4,000원까지 가격이 달라진다.
기본인 플레인 와플은 1,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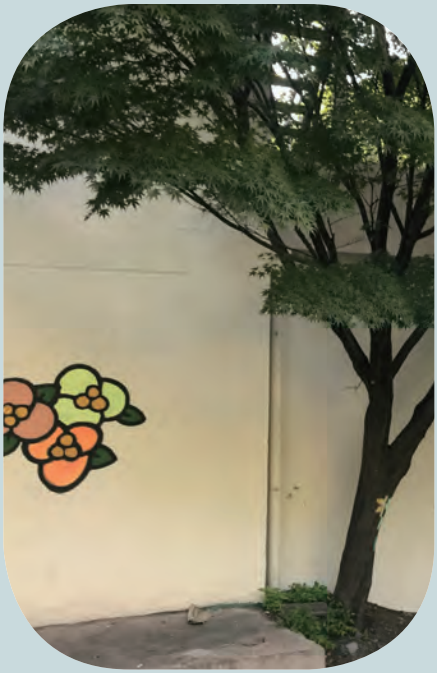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7길 37
open 월~토 11am~9pm, 일요일 휴무

고급 자판기 혹은 무인카페

Touch Cafe

커피 원두를 사용해 주문 즉시 로스팅해서 커피를 내리는 무인 카페다. 사용하는 커피 원두의 종류는 프랑스 3대 커피 중 하나로 90년 전통을 자랑하는 '메오'와 98년 전통의 이탈리안 블렌딩 커피인 이탈리아 전통 에스프레소인 '페레날레' 등이다. 커피 선택부터 결제, 완성까지 2분 전후로 기존의 자판기와 비슷하지만, 맛은 결코 자판기가 따라오지 못한다. 아메리카노 1,500원, 카페라테 2,100원 등 합리적인 가격이 매력적이다.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7길 35
open 6am~다음날 2am, 연중무휴



또 다른 길

문화와 예술의 공간, 이화여대 주변 거닐기

이화여대 상권은
대학 캠퍼스 내부는 물론
그 주변으로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역사가
곳곳에서 숨은 진주처럼 빛나는
이화여대 주변 산책길.

이대 앞 변화가 시작된 곳

이화 52번가

이화여대 상권의 변화는 이화 52번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화여대 정문 왼쪽 바로 옆에서 시작해 경의선 신촌역까지 이어지는
골목길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아채기 힘들지만,
오히려 이런 특성 때문에 숨은 숍을 찾아 골목을 걷는 재미가 있다.
길 이름을 따 '오이길'로 불리는 이곳은 본래 패션숍이 빼곡했던
골목으로 지난 2016년 서대문구청과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청년몰'로 새로이
조성되었다. 서대문구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이화 52번가 조성사업으로
특별부문 수상 지자체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흔한 패션의 거리에서 예술과 문화, 기술이 결합된 청년창업
문화거리로 탈바꿈한 것이다.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와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아이템이 더해진 숍으로 구성된
52번가에서는 젊음의 활력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또 이곳에 있는 테이크아웃은 모두 맛집으로 소문나 있다.
곳곳에 숨어 있는 52번가의 맛집 메뉴 중 하나를 고르기 어렵다면
여러 개를 포장해 이화쉼터에서 먹는 것도 추천한다.

address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부근

낭만과 운치의 이화쉼터

이화 52번가 골목 한가운데에는 잠시 쉬어가고픈 넓은 쉼터가 하나 있다.
비록 인조잔디지만, 파릇파릇한 청량감이 눈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화쉼터'는 지난 2017년 10월, 주차장이었다가 휴식공간으로 변모한 곳이다.
낭만과 운치 있는 이곳에서는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전시, 공연, 연극,
플리마켓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지기도 한다.

address 서대문구 대현동 16-7
open 11am~8pm, 토 · 일 · 공휴일 휴관(쉼터 야외 공간은 상시 개방)

커피 문화의 '별'천지

스타벅스 1호점 '이대점'

1971년 설립된 미국의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 1호 매장은
시애틀의 웨스턴 애비뉴에 있다.
1999년 7월 오픈한 우리나라 스타벅스 1호점은 이대 정문 앞에 있다.
총 3층으로 되어 있으며, 1층에서 주문을 하고
2, 3층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거듭한 스타벅스는
2016년 매출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2018년으로 스타벅스가 국내에 들어온 것은 20년이 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디자인팀을 따로 둘 정도로
스타벅스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커피 수입국이며,
커피 시장은 연 10조 원, 국민 한 사람이 연간 마시는 커피는
하루 1잔을 훌쩍 뛰어넘은 연 512잔이라는 통계도 있다.
그중 스타벅스가 차지하는 매출은 10분의 1을 넘는다.
소설 〈모비딕〉의 일등항해사의 이름에서 유래한 스타벅스의 로고인
바다의 신 '세이렌(Siren)'의 형상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그만큼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현상과 가치는 크다.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34
open 7am~10pm, 연중무휴
tel 02-758-8001

이화여대의 추억과 낭만을 이어갈 복합문화공간

신촌 박스퀘어

통학로 확보와 도심 정비를 이유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민원으로
고민하던 서대문구청은 서울 경의중앙선 신촌기차역 맞은편
공터에 노점상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지난 2018년 9월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1층에는 닭꼬치, 떡볶이, 쌀국수, 사주카페 등 이화여대 근처에서
영업하던 노점상인 23명이, 2층에는 빵, 커피, 화장품, 액세서리숍,
샐러드바 등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창업가 16명이,
3층 루프탑에는 수제맥주집이 들어섰다.
서대문구청에서 운영하는 박스퀘어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임대료 월 7만~10만원 선으로 입점자들을 최대한 배려했다.
노점의 경우에는 임대 기간의 제한이 없고, 청년 점포는 최대
3년까지다. 43억여 원을 들여 컨테이너형 건물로 지어진 박스퀘어는
노점상들의 자영업자 전환과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도심 재생 차원에서도 그 빛을 발하고 있다
(블랙의 기본 골조에 레드와 화이트로 포인트를 준 박스퀘어는
'2018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생활 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부문' 대상을 받았다). 추억과 맛을 이은 노점과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탄생한 박스퀘어가 이대 앞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로 22
open 11am~9pm, 명절 휴무
tel 02-3140-8371
homepage www.boxquare.kr

매일 마주치는 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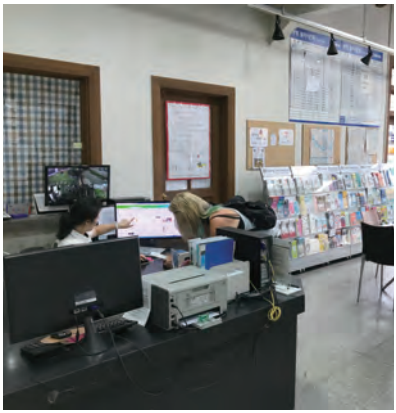
신촌역사

항상 한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알게 모르게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는 우리 주변 곳곳에 남아 있다. 거대한 신촌역 앞 아담하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신촌역사 역시 그런 건물 중 하나다. 1920년 역 업무를 개시한 한 신촌역사는 서울역사보다 5년이나 일찍 지어진,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기차역으로 98년이라는 세월을 오롯이 한 자리에서 지키고 있다.

이곳 신촌역은 남북이 분단된 이후 경의선 출발역 역할을 했으나 2007년 새로운 신촌역사가 생겨나면서 지금은 관광안내센터로 이용되고 있다. 신촌역사는 당시 철도역사의 전형적 유형을 그대로 띠고 있어 건축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크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신촌역사는 2004년 등록문화재 제136호로 지정되었다.

신촌역사 내부에는 과거 신촌역과 서대문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통근열차 시간표도 그대로 남아 있다. 안내원이 상주해 있으며, 서울시 관광 안내 책자와 서울 주요 지도가 비치되어 있어 주변 관광은 물론 서울시에 대한 관광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시간을 건너뛰어 과거의 공간을 경험하고 싶다면 신촌역사 내부로 발길을 옮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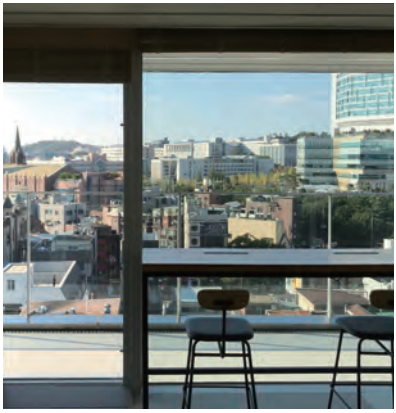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로 30
open 10am~7pm, 명절 휴무
tel 02-363-7833

청년 문화 예술인의 아지트

신촌문화발전소

신촌역에서 답답한 골목길을 지나 하늘이 보이는 오르막길을
올라가다 보면 언덕배기 중간쯤 우뚝 솟은 '신촌문화발전소'를
발견하게 된다. 신촌문화발전소는 지역 주민과 청년예술가를 위한
문화 공간이자 창조 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표방하며
지난 2018년 6월 문을 열었다. 지하 2층과 지상 4층을 포함해
총 6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이 모여
청년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획된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지하 2층은 무대와 객석을 바꿀 수 있는 소극장으로 약 80명을
수용할 수 있다. 2층의 창작기획 스튜디오인 '스튜디오 창'은
스크린과 기본 음향 기기가 구비된 회의실로 대관 심의를 통해
무료로 빌릴 수 있다. 3층은 외부 풍경을 바라보며
저렴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 '바람'이며,
4층의 야외테라스는 신촌 일대와 이대 부근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루프탑이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전경의 낮과 밤은
그 색깔이 완전히 달라 이곳에서 바라보는 전경의 재미를 더해준다.
신촌문화발전소는 오픈한 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소극장을 중심으로 예술가들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면서 서서히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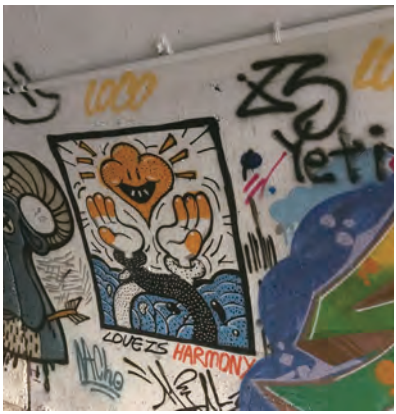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2나길 57
open 10am~10pm, 월요일 휴관
tel 02-330-4393(카페)
homepage www.scas.or.kr

거리 화가들의 전시장

신촌 토끼굴

신촌역에서 신촌 쪽으로 100여 미터를 따라 걷다 보면 보이는
'토끼굴'은 과거부터 이대와 연대를 잇는 통로였다.
그러나 폭 4.5m, 길이 60m 정도의 좁고 어두컴컴한 통로는
연대 정문 앞으로 넓고 번듯한 도로가 뚫리면서
사용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이곳의 용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라피티 문화가 퍼지며
토끼굴은 거리 예술가들에게 그라피티의 성지로 여겨졌고,
2016년 방영했던 공유와 이동욱 주연의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로 다시금 주목을 받기도 했다.
주변보다 낮은 지대에 통로가 나 있는 토끼굴은 입구에서부터
다양한 그림체의 그라피티가 그려져 있어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벽면의 그림을 감상하다 보면 미술관에 온 듯 그 재미가 쏠쏠하다.
서대문구는 이 토끼굴을 그라피티 전시 공간이자 작업 공간으로
만들어 자유로운 분위기의 길거리 예술존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토끼굴에서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그라피티 작업을 허용하지만,
퇴폐적이거나 정치적인 표현이 담기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도 이 토끼굴을 통해 지저분한 낙서를 예술 차원으로
승화시킨 세계적인 그라피티 아티스트인 장 미쉘 바스키아나
키스 해링과 같은 아티스트가 나타날 것을 기대해본다.



address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로

이대 앞, 그 새로운 가능성

시대에 따라 문화가 달라지듯, 거리에도 트렌드가 있다. 사람들은 새로이 떠오르는 '핫 플레이스'에 열광하며 거리로 몰려든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하나둘 모이고, 멋진 숍이 생기면 입소문이 나서 핫 플레이스가 된다.

지역구의 주민과 상인의 노력 없이는 쉽게 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는 트렌드에 대한 관심과 그를 앞서가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서대문구청은 이대 앞 상권을 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그 시작이 이화 52번가의 조성, 이화여대5길을 디자이너 길로 특화한 것이며, 뒤이어 박스퀘어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도하지 못했던 일을 과감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대문구청은 좋은 입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줄어든 이대 앞 대현문화공원을 4계절형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

한 계획에도 착수했다. 녹지를 확충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자연과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와 더불어 이대 전철역부터 이대 정문 앞에 이르는 길의 차폭을 확장하고, 가로수 정비와 가로등(27개)에 보행등을 신설하는 등의 보도 정비 공사도 추진한다. 노후한 도로를 정비하고 어두운 주변을 정리해 이대 앞 거리의 분위기 바꾸겠다는 목표다.

10여 년간 유령 건물처럼 제 기능을 못하고 버려져 있다시피 한 신촌역사가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말 신촌역 밀리오레에 면세점이 선정됨에 따라 상권 부활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대 앞의 골목골목을 걸으며 많은 사람들은 추억과 낭만을 만난다. 이제 이곳의 크고 작은 변화를 지켜보는 일은 우리 모두의 새로운 즐거움이 될 것이다.

illust map
이대 앞 골목

이화 52번가
이화 여자대학교
구길
5길
중통거리
5길
스타벅스 1호점
E.FaRo 홍보관
대현문화공원
이대
이대역

이대 앞
골목 산책
추억과 낭만
그리고 새로운
즐거움을 만난다

발행인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발행처 서대문구
발행일 2018년 11월 8일

기획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신촌연희도시재생팀장 김경민
주무관 이은진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86 연희127빌딩 2F 도시재생추진단
전화 02-330-1322
팩스 02-3140-8353

편집·제작 버튼북스
글 김진
디자인 모리스
일러스트 라미

서대문구
SEODAEMUN-GU